



청정 동해와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강릉

강 육
자유기고가

푸른 빛 동해와 마주한 강릉시는 예로부터 강원 영동지방의 행정, 문화, 상업의 중심지였고, 높은 산, 바다, 석호 등을 갖춘 명승지가 많아 아름다운 관광도시로 이름이 높다. 웅대한 백두대간이 흘러내리는 동해안 중심부에 위치한 강릉시는 평저한 구릉지대로, 영동과 영서의 분수령인 서쪽으로는 동대산(고도 1,434m), 대관령(고도 832m), 노추산(고도 1,322m) 등 높은 산지들이 동해 방향으로 뻗어 점점 낮아지면서 해안에 이르고, 이 산지들 사이로 신리천, 연곡천, 사천천, 남대천, 군선강, 주수천 등의 하천들이 흐른다.

예전에 이곳으로 부임해 오면 벼슬아치고 험준한 대관령을 넘으면서 울지 않은 이가 없었다고 하며 또 넘어와서는 웃지 않은 이가 없었다고 한다. 강릉이 그토록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소박한 인심을 가진 살기 좋은 곳을 이르는 말이다.

강릉시는 산촌, 농촌, 어촌 등 복합된 생

활여건을 가지고 있어, 문화적 특성 역시 복합적이며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빼어난 자연경관과 많은 유·무형 문화재와 같은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과 전통이 잘 어우러진 강원 영동지방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1세기를 맞아 강릉시는 국제 수준의 4계절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미래 지향적인 환동해권의 중심지로 발전을 꿈꾸고 있다.

강릉시를 상징하는 동물은 호랑이이고, 시의 꽃은 해당화, 시의 나무는 소나무이다. 호랑이는 이곳의 전설에 많은 이야기를 남기고 있고, 해당화는 이곳 바닷가 아무데에서나 잘 자라고, 소나무는 나라 안에서도 으뜸갈 만큼 훌륭한 숲들을 이 시 안에 이루고 있다. 그래서 시 나무인 소나무는 “김씨 많고, 최씨 많고, 소나무 많다.”는 강릉시의 ‘3다’에 들기도 한다.

이곳 토박이들은 어려서부터 호랑이에 얽힌 옛날이야기 한 가지쯤은 쉽사리 익힌

다. 이를테면 호랑이가 처녀를 물어갔다는 ‘애기’이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점차로 호랑이가 왜 처녀를 물어갔으며 그것이 이 고장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애기인지를 배운다.

옛날 옛적, 어느 날에, 이곳 정씨 집의 딸이 호랑이에게 물려갔었는데, 사람을 풀어 살살이 찾아보니 딸이 대관령 국사 서낭당에 죽어 있었다고 한다. 딸이 호랑이에게 물려가기 전에 정씨는 꿈에서 대관령 국사 서낭이 “이 집에 장가들겠다.”고 하는 것을 서낭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서낭은 호랑이를 보내 딸을 데려오게 하여 혼례를 올린 것이라는 것이다.

나라 안에 흔하게 전래되는 호랑이 이야기쯤으로 들리지만 이 ‘애기’는 다시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서면서 이곳의 민속과 결합되고 이곳 사람들의 삶과 결합된다. 이곳 토박이들이 대관령 국사 서낭과 함께 호랑이를 신으로 떠받드는 민속 신앙을 가진 것은 그 때문이다. 대관령 국사 서낭이 정씨의 딸과 혼례를 올린 날은 음력 사월 보름날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해마다 이 날이 되면 이곳 사람들은 대관령 국사 서낭을 맞아 정씨 딸이 모셔져 있는 여서낭사에 함께 모시고 큰 제사를 올린다. 이 큰 제사가 바로 강릉시를 중심으로 한 영동 지방, 나아가서는 이른바 태백 문화권의 모든 주민들이 신명이 나서 물려드는 강릉 단오제이다.

강릉시의 동북쪽 분지는 동쪽으로 ‘거울같이 맑은’ 경포호를 안고 바다로 열려 있다. 달밤에 술잔을 기울이면 달이 하늘뿐만이

아니라 호수에도, 바다에도, 술잔에도 그리고 마음에도 떠서 다섯 개나 된다는 경포호의 언저리는 경관이 뛰어나서 관동 8경의 하나로 첫손가락에 꼽히는 곳으로, 경포대를 위시하여 모두 열두 개가 되는 누각, 정자가 정취를 돋우고 있다. 조선 시대의 큰 시인인 송강 정철이 지은 <관동별곡>에서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청년 장교 시절에 지었다는 시에 이르기까지 이곳을 두고 읊은 시는 어느 명승지의 것보다 더 많다.

소설가 이무영씨가 자신의 여행기를 중심으로 하여 편찬하여 1948년에 발간한 <고도 승지대관>에 실린 전설에 따르면 경포대가 있던 자리는 본디 물이었던 모양으로 이곳에 큰 부자가 살았는데 중이 시주를 청하자 똥을 퍼 주었다고 한다. 그랬더니 밤사이에 물이 큰 호수로 변하였고 곳간에 쌓였던 쌀이 조개로 변했다고 한다. 이 전설 속의 조개는 이곳에서 때복이라고 부르는 민물조개이다. 개펄 속에서 자라며 큰 것이 백원짜리 동전만한 이 조개는 찌개거리나 국거리로 쓰이는데 강릉 사람들이 부새우라고 부르며 젓을 담가먹는 곤쟁이와 함께 경포호의 명물로 손꼽힌다. 이 밖에도 경포호에서는 잉어, 가물치, 뱀장어, 붕어도 많이 난다.

관동팔경의 하나인 경포대는 고려 충숙왕 13년(1326)에 강원도 안렴사 박숙정이 현 방해정 뒷산 인월사 옛터에 창건하였던 것을 조선 중종 3년(1508)에 강릉부사 한급이 현 위치로 옮겨 지은 것이다. 이후 몇 차례 중수했고, 고종 10년(1873)에 부사 이직현이 중건한 뒤 1934년, 1947년, 1962년

에 다시 중수했다. 이 건물은 익공계 양식에 팔작지붕으로 건축된 누대이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경포팔경(녹두일출, 죽도명월, 강문어화, 초당취연, 홍장야우, 증봉낙조, 환선취적, 한송모종) 및 경포월삼(월주, 월담, 월파)은 천하의 장관이다.

대호인 '경포대'의 전자액은 유한지, 해서액은 이익희의 글씨이다. 내부에는 율곡 이이 선생이 10세 때 지었다는 '경포대부'를 비롯하여 숙종의 어제시 및 명문으로 알려진 조하망의 상량문, 송시열이 쓴 '해운정' 등 여러 명사들의 기문, 시판이 걸려 있다. 또한 '제일강산'은 주지번이 썼다고 전하는데 '강산' 두 자를 잃어버려 후세에 누군가 써 넣은 것으로 추측된다.

경포호에서 들 저쪽에 바라보이는 서쪽의 죽헌동에 오죽헌이 있다. 강릉 하면 생각나는 인물은 역시 율곡 이이와 그의 어머니 신사임당이다. 보물 165호 강릉 오죽헌은 우리나라 어머니의 사표가 되는 신사임당이 태어난 곳이며, 또한 위대한 경세가요 철인이며 정치가로서 구국애족의 대선각자인 율곡 이이 선생이 태어난 곳이다.

오죽헌은 강릉 유현인 최치운이 창건하여 아들 응현에게 물려주고 응현은 사위 이사온에게 물려주고 이사온은 다시 그의 사위 신명화(사임당의 부친)에게, 신명화는 또 그의 사위 권화에게 물려주면서 그 후손들이 관리해 왔다. 그러다가 1975년에 오죽헌 정화사업으로 문성사, 기념사 등이 건립되어 현재와 같은 면모를 갖추고, 선생의 위업과 교훈을 길이 추앙하게 되었다.

또한 강릉은 당대의 문장가이며 개혁사

상가였던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과 허난설헌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1996년부터 강릉시는 그동안 지역에서 소외되었던 허균, 허난설헌에 대한 유적지 정비와 열선양사업(홍길동 축제)을 추진하고 있다.

강릉단오제는 전국에서 가장 역사 깊은 축제중의 하나이다. 일제시대, 전쟁 등 수많은 사회변화를 겪으면서도 강릉단오제는 영동주민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체의 역할을 해 왔으며, 현재에도 강릉단오제는 전통문화의 전승통로이자 재창조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강릉은 옛 동예의 땅이다. 기록에 의하면 예국에서는 10월에 무천이라는 축제를 행하였는데 무천이 추수감사제라면 5월 단오제는 상대적으로 곡물의 성장 의례적 성격을 띠는 파종기 축제라 하겠다. 이렇게 볼 때 강릉단오제의 역사는 매우 깊을 것으로 짐작되나 구체적인 기록은 별로 남아있지 않다.

강릉단오제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강릉 출신 허균에 의해 이루어 졌다. 허균은 강릉단오제를 직접 보고 기록을 남겼는데 제사를 받는 대상이 김유신장군이라고 썼다. 김유신은 어려서 명주에 유학하여 무술을 익히고 삼국을 통일을 한 후 죽어서 대관령산신이 되었고 이 신이 영험하여 해마다 5월이면 대관령에 가서 신을 맞이하여 즐겁게 해 준다고 하였다.

신이 즐거우면 풍년이 들고 노하면 천재지변을 주어 명주사람들이 모두 모여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역사는 알 수 없으나 예부터 강릉단오제는 민중이 중심이 되어 행하되 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진 민관공동의 축제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도 강릉단오제의 중요 제의(祭儀)에는 강릉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들이 제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강릉단오제는 상하가 함께 했던 고대 제의의 축제적 모습이 온전히 살아있는 행사라 하겠다.

현재 단오제는 음력 4월 15일 대관령산신당에서 제사를 올리고 신목(神木)을 모시고 내려와 구산성황당(邱山城隍堂)을 거쳐 흥제동에 있는 국사여성황당에 모셨다가 행사 전날인 음력 5월 3일 저녁 영신제(迎神祭)를 지내고 위패를 남대천 백사장에 마련된 제단에 옮겨 모심으로 강릉단오제의 서막이 올려진다. 단오장에서는 5일간 아침마다 제를 올리고 굿을 하며 풍농, 풍어등을 기원하며 모두 한마음이 되어 제를 올린다. 그밖에 관노가면극, 그네, 씨름, 농악경연대회, 농요경창대회 등 수많은 민속놀이와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1962년 11월6일 검은 연기와 함께 증기기관차는 정동진 나루를 가로질러 바닷가 작은 마을에 기적소리와 함께 도착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기차가 정차 한다는 것에 대해 지금에 느끼는 만족감 이상으로 기뻐했다. 그 사건은 마을의 경사이자 장차 다가올 신드롬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11월8일 작고 아담한 역사는 신축 준공되었고, 여객과 화물수송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30여년이 지나는 동안 정동진역은 소박한 소시민들의 웃음과 슬픔, 만남과 이별의 무대가 되었고, 아름다운 바닷가와 주변의 비경이 어우러져 테마여행지로 각광

받게 되었다.

정동진역 일원은 서울의 광화문에서 볼 때 정 동쪽에 위치 한다하여 이름 지어졌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이 지역은 강릉 광업소등 많은 탄광이 밀집해 있던 지역으로, 한때 인구가 5천명에 이르렀으나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으로 10여년 만에 인구 2천명도 안 되는 조그마한 어촌으로 변했고, 수입원은 농업과 어업이 전부였다. 그러던 중 “모래시계” TV드라마가 방영된 이후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철도청에서는 해돋이 열차를 운행하여 여섯시간이 걸리는 꿈같은 일출여행을 선도했다.

청량리, 부산, 동대구, 대전, 광주, 전주, 의정부, 춘천 등 전국의 모든 역에서 정동진을 여행하는 관광열차의 행렬로 정동진역은 전국에서 제일 활기 넘치는 역으로 변모했다. 또한 수학여행단 및 각 여행사는 정동진, 강릉, 설악산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여행상품을 개발해 기존의 관광코스에 식상해 있던 여행자들에게 활력을 주었다.

정동진은 마을은 물론이고, 주변의 여러 도시들의 재정수입 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 앞으로 정동진의 성공사례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 성공모델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이어온 “정동진 신바람”은 정동진역이 전국에서 바다가 제일 가까운 역이고, 서울에서 정 동쪽에 있다는 위치적인 의미 그 자체가 아니라, 주변의 환경과 주민들, 그리고 항상 아담한 역사를 유지하기 위해 애쓴 역대 역장들과 역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